

영어신문기사제목의 문법적특성과 그 활용방도

김 학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외선전출판물을 만드는 목적은 우리가 보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해당 나라 사람들이 보게 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외선전출판물번역을 주관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풍습에 맞고 그들이 알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10권 484페이지)

현시기 외국어번역을 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해당 외국어의 언어적특성을 잘 알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활용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것이다.

이 글에서는 영미신문들에서 나타나고있는 기사제목의 문법적특성을 분석하고 그 활용방도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현대영어신문들에 실리는 기사글의 언어적특성가운데서 주목을 끄는것은 기사제목의 문법이다. 일명 《기사제목문법》 혹은 《절약문법》으로 알려져있는 영어신문기사제목의 문법은 영어로 된 다른 이여의 글이나 본문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형식과 체계를 가지고있다.

영어신문기사제목의 문법적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동사시칭형태의 쓰임에서 찾아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동사의 시칭범주에는 현재시칭, 과거시칭, 미래시칭이 있으며 매 시칭은 또 미정, 지속, 완료, 완료지속형태들로 갈라진다.

그러나 영어신문기사제목에서는 이 형태들중 몇개의 시칭형태들만이 제한되어 쓰이거나 변형되어 쓰인다.

우선 기사제목에서 술어동사는 취급되는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것이든 미래에 일어난것이든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다 현재형을 취하는것이 원칙으로 되고있다. 미래형은 대단히 드물며 과거형은 거의 없다. 대체로 현재형을 가지고 현재, 과거, 미래의 사실을 모두 표현하고있다.

례: — 현재의 사실

Guerrillas seek peace talks compromise

(게릴라들이 평화회담 화해책을 모색)

Danger grows of new war between Syria and Israel

(수리아와 이스라엘사이에 새로운 전쟁위험이 증대)

— 과거의 사실

Fighting in Kabul leaves 30 dead

(카불에서 싸움으로 30명이 사망)

MP urges inquiry (국회의원이 조사할것을 강력히 요구)

— 미래의 사실

Vice-chancellor quits (대학 부총장이 사직하게 된다)

기사제목에서 현재형으로 현재와 과거, 미래의 사실까지도 다같이 나타내는것은 독자를 바로 행동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사건에 직접 관계하고있는듯 한 느낌을 주려는데 있다.

또한 기사제목에서 과거의 사실은 현재시칭으로 나타내는것이 일반적이며 과거시칭은 벌어진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수단으로만 쓰인다.

례: Mr. Braun “gave wrong facts to House”

(브라운씨 《국회에 잘못된 사실을 제공하였다》)

“I was not his slave” (《나는 그의 노예가 아니었다》)

기사제목에서 과거시칭이 쓰이는 빈도수는 직접담화문이 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며 쓰이는 경우에는 흔히 필자의 단정적 혹은 객관적평가를 보여주는 문법적요소로 된다.

또한 기사제목에서 미래의 사실은 will이나 shall과 같은 조동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to+미정사》와 같은 변형된 형태들로 나타낸다.

미래적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be + to 미정사》형태

Islamic press to sue UK TV firm

(이슬람교출판업체가 영국 TV회사를 고소할 예정)

② 《(be) due(to + 미정사)》형태

India-Pakistan peace talks due today

(인디아-파키스탄 평화회담 오늘 열릴 예정)

③ 《likely (to + 미정사)》형태

Inflation rate likely to rise (통화팽창률 상승 예견)

④ 《be seen(expected, considered) + 현재분사》형태

Berlin Is Seen Winning EU Central Bank

(도이칠란드가 유럽중앙은행을 틀어쥔 기미가 보인다)

⑤ 《be + 현재분사》형태

Health Minister is meeting on June 27

(보건상회견은 6월 27일로 예정)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래적의미를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은 보다 긴 말로 풀어야 할 앞으로의 사실에 대해 간결하게 표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영어신문기사제목들에 자주 쓰인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것은 《to + 미정사》형태이다.

영어신문기사제목의 문법적특성은 다음으로 문법적요소들의 생략에서 찾아볼수 있다.

영어신문기사제목에서 일부 문법적요소들의 생략은 일반문법의 견지에서는 허용될수 없는 한계에까지 이른것으로서 기사제목문법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영어신문기사제목에서 내용전달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동사 be와 관사 그리고 접속사 and와 that는 거의나 생략된다고 볼수 있다.

영어신문기사제목에서 일부 문법적요소들의 생략현상을 부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사 be의 생략이 있다.

원래 일반문법의 견지에서 볼 때 동사 be는 문장안에서 조동사와 계사로 쓰인 경우 생략될수 없다. 그러나 기사제목에서는 이러한 문법적규칙이 거의나 무시되고있다.

영어신문기사제목들에서 동사 be가 이처럼 자유롭게 생략되는것은 제목을 간결하게 그리고 박력있게 표현할데 대한 표현적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영어신문기사제목에서 동사 be가 생략된 형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례: - 현재지속시칭에서 동사 be의 생략

Prices (Are) Hiking in Russia (로씨야에서 폭등하는 물가)

- 《be + to미정사》에서 동사 be의 생략

Delegation (Is) to Leave Tomorrow (대표단 래일 출발할 예정)

- 《be + 형용사》에서 동사 be의 생략

Wolves (Are) Sure of Victory (울브즈팀 승리를 확신)

- 《be + 전치사》에서 동사 be의 생략

Bigger Problems (Are) on (the) Way (목전의 난문제)

- 《be + 과거분사》에서 동사 be의 생략

Search (Is) Abandoned for Missing Prof (행방불명된 교수에 대한 수색 포기)

또한 관사의 생략이 있다.

관사는 영어신문기사제목에서 가장 많이 생략되는 문법적요소들중의 하나이다.

내용전달에서 오해를 가져오지 않는 한 the나 a/an과 같은 관사들은 거의나 생략된다.

례: Boy on cliff rescued = A boy on a cliff is rescued

(벼랑우에서 한 소년이 구원됨)

Volunteer, terrorist killed in an ambush = A volunteer and a terrorist are killed in an ambush (지원병과 테로분자가 매복에 걸려 살해됨)

현재 영어기사제목에서의 관사의 생략은 하나의 중요한 문법적특징으로서 일반문법적견지에서는 전혀 허용될수 없는 범위에까지 이르고있다.

일반명사앞에 오는 형용사의 최상급에는 반드시 정관사 the가 붙게 되어있으나 기사제목에서는 생략되는것이 특징이다.

례: Exporters to be given (the) strongest support

(가장 큰 지지를 받게 될 수출업자들)

《명사/명동사 + of》로 된 구의 경우 명사/명동사앞에 관사가 붙게 되어있으나 기사제목에서는 쓰이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다.

례: (The) Stiffening of EU in face of Britain's demands

(영국의 요구와 맞서는 유럽동맹의 긴장감)

영어신문기사제목에서 이와 같이 관사들이 일반문법규칙의 허용한도를 훨씬 벗어나 생략되는것은 내용리해에 지장이 없는 한 기사제목을 오직 필요한 단어들만으로 짧고 힘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독자들의 흥미를 집중시키려는 표현적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접속사 and와 that의 생략이 있다.

영어기사제목에서 접속사 and와 that는 대체로 생략되며 and는 흔히 반점으로 표시된다. 그것은 지면을 절약하며 간결하고 힘있게 표현할데 대한 기사제목의 표현적요구로

부터 출발한것이다.

례: Leopold says (that) state must declare war on drugs

(레오폴드 주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

State, firms to pay \$ 17m in damage to drug victims = State and firms are to pay \$17m in damage to drug victims

(주와 회사들이 마약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1 700만\$를 지불하게 된다)

영어신문기사제목의 문법적특성은 다음으로 전치사의 독특한 쓰임에서 찾아볼수 있다.

영어신문기사제목에 쓰이는 전치사는 기사본문글에 쓰이는 전치사일반을 다 포괄하지 않으며 매우 짧은것이 특징이다. 기사제목에 보다 짧은 전치사들을 쓰는것은 기사제목을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의도와 관련된다.

영어신문기사제목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들은 on, of, in, for와 같은것들이다.

기사제목에 긴 전치사대신에 짧은 전치사들을 쓰는것은 영어신문글에서 자주 찾아볼수 있는 현상이지만 미국신문들의 경우에 보다 특징적이다. 그것은 미국신문들이 영어회화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우선 기사제목에서 전치사 on이 against대신으로 많이 쓰이며 더우기는 on account나 because of의 대신으로도 쓰인다.

례: Union calls strike on (= against) cuts

(로조 비용삭감을 반대하여 파업 호소)

Shotgun Drama on (= because of) Drugs

(마약으로 하여 일어난 극적인 총격사건)

또한 전치사 in이 입말체로 into대신에도 쓰인다.

례: French drop visa requirement for travel in(= into) Aurian zone

(프랑스가 오리양지역으로의 여행을 위한 사증요구를 거절)

영어신문기사제목의 문법적특성은 다음으로 구두법의 리용에서 찾아볼수 있다.

신문기사의 제목에서 구두법의 리용은 간결한 표현의 질을 보장함에 있어서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두점(colon)이나 풀이표(dash)와 같은것은 마치도 술어동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say, speak, declare, assert 등의 의미를 가진다.

례: Foreign Capital Prospects Less: Jack Smith

(외자도입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잭 스미스가 언명)

US Troops in a Dilemma in s. Korea - Pentagon

(미군이 남조선에서 진퇴량난에 빠져있다고 미국방성이 비명)

영어신문기사제목에서 구두법은 필자의 감정정서를 뚜렷이 나타내는 표현수단으로 쓰인다.

신문기사제목에서는 흔히 인용부호를 써서 각이한 문체론적효과를 나타낸다.

우선 보도된 사실에 대한 의혹을 표시한다.

례: Nurse tells of horror when “dead” man moved

(간호원이 《죽은》 사람이 언제 움직였는가를 공포에 질려 말했다)

우의 기사제목에서 필자는 단어 dead에 인용부호를 씌므로써 보도된 사실에 대한 강

한 의혹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인용부호를 써서 야유를 나타낸다.

례: A protest “gift” for Interior Ministry (내무부청사에 걸린 항의《선물》)

우의 실례의 첫 기사제목은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항의로 농민들이 죽은 돼지대가리를 내무부청사에 걸어놓고 항의투쟁을 벌리고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필자는 단어 gift에 인용부호를 씌으로써 그것이 정부의 반인민적시책에 대한 옹당한 《선물》이라는것을 야유하여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다.

인용부호는 기사제목에서 내용상 오해를 피하고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인다.

례: Healey “Hush Money” Shock (힐리의 《입틀어막기자금》사건)

Labour “Secret Mafia” Storm (레이버당 《비밀마피아》를 강력히 비난)

이상에서 본 영어신문기사제목의 문법적현상들은 다른 언어의 글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기사제목에만 고유한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는 영어로 된 신문, 잡지들에도 옮겨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는 대외영어신문으로는 《Pyongyang Times》가 있다.

영어로 된 우리 신문기사제목글번역에서는 무엇보다먼저 내용은 우리의것이라고 해도 독자는 어디까지나 외국인들인것만큼 그 형식을 영어맛이 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신문들의 기사제목은 영어신문기사제목과는 달리 시칭이 매우 자유로우며 시간적개념이 명백히 나타난다. 그러나 영어신문기사들의 제목에서는 그것이 과거의 사실이든 미래에 일어난것이든 관계없이 현재로 표현하는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우리 기사제목의 시칭에 따라 번역하면 영어신문기사제목의 문법적특성을 살릴수 없고 영어맛이 나지 않게 된다.

현재 우리 영어신문, 잡지들에 나타나는 기사제목들은 대체로가 영어신문기사제목의 문법적특성을 살려 쓴것들이라고 볼수 있다.

실례로 《Pyongyang Times》에 실린 기사제목 《Toilet soap shop opens》, 《WPK central committee hosts banquet》 등은 영어신문기사제목의 문법적특성에 맞게 시칭이 선택된것들이다.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영어신문기사제목문법에는 미래시칭형태가 없으므로 《to + 미정사》나 미래적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쓰면 보다 영어맛이 나게 된다.

실례로 《원산관광지구가 곧 열리게 된다》의 경우 조문 그대로 《Wonsan Tourist Zone will soon open》으로 할것이 아니라 《Wonsan Tourist Zone to open》 혹은 《Wonsan Tourist Zone likely to open》 등으로 번역하는것이 옳다.

영어로 된 신문기사제목글번역에서는 다음으로 주어에 알맞는 간결하고 표현성이 강한 동사를 선택하여야 한다.

주어에 알맞는 동사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영어신문의 본문글에서는 선택된 동사의 구조적간결성보다도 그것이 주어와 맺는 련어적관계의 적합성이 기본이지만 제목에서는 련어적관계에 앞서 내용리해상 지장이 없는 한 구조적으로 짧고 함축된 의미를 띤 그러면서도 표현성이 강한 동사선택이 기본이라는것이다.

실례로 《로켓트발사》라는 우리 말 기사제목의 경우 《발사》라는 동사적의미를 띤 명

사단어가 로켓발사의 힘찬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을 《Rocket launched》로 번역하면 동사 launch의 선택은 주어-술어의 언어적관계에서는 별문제가 없지만 구조적으로는 좀 길며 의미적으로 볼 때도 로켓을 쏘았었다는 통보적의미만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Rocket goes(혹은 climbs, rises 등)》로 번역할수도 있으나 그러면 힘찬 느낌이 적어지므로 《Rocket thunders》라고 번역할수 있다. 그러나 thunder도 단어가 좀 길므로 보다 짧은 단어를 선택하여 roars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통하면서도 로켓가 발사되는 힘찬 모습도 동시에 나타낼수 있으므로 주어에 알맞는 동사를 선택한것으로 볼 수 있다.

기사제목 《국제대사령이 남조선에서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규탄》을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Amnesty International condemns crackdown on s. Korean democrats》에서와 같이 동사 condemn을 쓸수도 있으나 기자들이 즐겨쓰는 flay(=criticize strongly: or accuse)를 써서 표현하면 보다 영어맛이 나게 될것이다.

예: Korean reunification favored (조선의 통일을 지지)

10 000 workers resolve to fight (1만명 노동자들 싸울것을 결의)

우의 기사제목들은 모두 평양타임스에 실린것들로서 전달하려는 사상이 명백한것들이다. 그러나 이 기사제목들에 쓰인 동사는 기사제목의 요구에 맞게 선택된것들이라고 할 수 없다.

영어신문기사제목에서는 의미가 함축된 짧은 단어들을 쓸것을 요구하는것만큼 favored대신에 backed를, resolve대신에 vow를 쓰면 내용에 손상이 가지 않으면서도 짧게 표현한것으로 될수 있다.

영어로 된 우리 신문기사제목글번역에서는 다음으로 불필요한 문법적요소들을 빼버려야 한다.

실례로 기사제목 《전력생산증가》를 《Boost in power production》으로 번역하였다면 이것은 문법적결합관계로 보나 단어선택, 번역상으로는 옳은것이다. 그러나 이 번역에서 전치사 in이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그것이 없이 《Power production boost》로 번역해도 내용리해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전달하려는 사상이 직접 안겨온다. 그리고 명사의 규정어적용법이 쓰이면서도 명명문으로 되어 제목을 보다 박력있게 해주며 영어기사제목다운 맛을 주게 된다.

다른 실례로 《새 생활창조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For the building of a new life》로 번역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제목이라는 감에 앞서 문장의 어느 한 부분을 따내온듯 한 인상을 준다. 우의 번역에서 관사들과 내용리해에 그닥 지장이 없는 building과 같은 단어를 빼버리고 《For new life》로 해도 기사제목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번역은 제목을 짧게 하면서도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할수 있게 해준다.

이밖에도 and, that와 같은 접속사는 될수록 피하는것이 좋다.

실례로 《철강재생산 증가》를 번역할 때 and를 없애고 《Iron, steel production up》으로 하면 제목으로서의 특성을 살린 번역이라고 할수 있다.

기사제목을 영어맛이 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제목번역에서 불필요한 단어들을 대담하게 빼버리고 될수록 간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실례로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의 경우 《Anachronistic mode of thinking》이라는

번역은 불필요한 단어들이 쓰인것으로 볼수 있다. stance라는 단어가 이미 기사제목어휘로서 way of thinking이라는 파생적의미를 띠고 영어신문들에서 널리 쓰이고있으므로 이 제목을 《Anachronistic stance》로 번역하는것이 보다 기사제목으로서의 특성을 살린것이라고 볼수 있다.

다른 실례로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비난》을 《Imperial Japanese army's war crimes criticized》라고 번역하는것보다 불필요한 단어들을 빼고 《Japanese war crimes slammed》로 번역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영어로 된 우리 신문기사제목글번역에서는 다음으로 제목을 될수록 활동적인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활동적인 기사제목이라고 하면 이미 한것이나 말한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있거나 말하고있는것을 전하는 제목으로서 활동적인 기사제목으로 되자면 동사를 담아야 하며 그 동사는 함축적인것이여야 한다.

특히 기사제목번역에서 원문에 있는 동사를 분사로 처리하여 형용사적의미를 띠고 규정어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동사를 분사로 처리하여 규정어처럼 쓰면 제목에 활력이 없어지고 필요한 표현적효과를 나타낼수 없기때문이다.

실례로 한 번역자가 《석탄생산이 늘어난다》와 《참대숲이 설레인다》, 《대결소동을 강화》를 각각 《Increased coal production》, 《Flourishing bamboo forest》, 《Intensified confrontation scheme》으로 번역하였다면 이러한 번역은 잘못된것이라고 볼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제목들은 원문을 그대로 살려 《Coal production soars》, 《Bamboo forest flourishes》, 《Confrontation (scheme) intensified》로 번역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영어로 된 신문기사제목글번역에서는 다음으로 구두법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

영어신문기사제목에서 두점, 풀이표와 같은 부호표식들은 술어적역할을 하므로 그것을 적극 리용하는것이 필요하다.

례: Life expectancy: 74 years (수명이 74살로)

영어기사제목에서 술어의 역할을 수행하는것은 두점이나 풀이표만이 가능하며 반점은 접속사 and를 대신할뿐 술어로서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어신문기사글번역을 비롯한 언어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외국어교수에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실천형의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영어신문기사제목, 문법적특성, 번역